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화와 계급 정체성 형성에 대한 영상방법론적 연구*

이상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홍석경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연구는 기존 학술담론과 사회문화적 현실에서 주변화되고 간과되어 왔던 서울 '강북'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들 나름의 일상을 영위하고, 저마다 정당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약 3년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생 아홉 명의 1학년 시절과 졸업 후 진로를 택하게 된 시기, 이렇게 두 시점 속에서 그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또한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속지학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을 도입했다. 같은 '강북'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일상의 구조와 경험이 달랐는데, 상대적으로 중하층의 '주변부적' 위치에 놓인 청소년들은 방치되고 무료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음악듣기, 독특한 취향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육체적 실천 등을 통해 소비문화에서 벗어난, 저마다의 일상생활 문화를 만들어내고 긍정적 자기 서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러 그들은 결국 계급적 한계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와 직업교육, 자격증 획득으로 이어지는 '노동하는 청년'으로서의 현실경험 속에서 계급 귀속성이 생성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그 경험에 대한 긍정적 가치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계급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문화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향후 한국사회의 복잡한 계급문화 지형도 속에서 청소년기의 계급 문화의 형성과 재생산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논문은 강북 청소년들을 계급 재생산으로 결정지어진 수동적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각자 자기 삶의 능동적 행위자로 볼 것을 제안한다.

KEYWORDS '강북' 청소년, 일상생활, 계급 정체성, 성찰적 사진 인터뷰, 영상방법론

*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기금에서 일부 지원받았음을 밝힙니다.

** ky4@snu.ac.kr

*** skhong63@snu.ac.kr

1. 문제제기: ‘강북’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 민속지학의 시도

본 연구는 서울 ‘강북’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들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지 탐구한다. 여기서 ‘강북’이란 용어는 단순히 지정학적 차원의 지역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매우 복합적인 계급적·문화적 함의를 가진다.¹⁾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북’ 청소년들을 탐구하고자 하는가? 기존의 청소년 연구들은 대부분 제도적·규범적 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화하여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가 하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는 ‘탈학교’, ‘빈곤층’ 청소년들, 또는 매우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하위문화’의 측면에서 청소년에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 틀 속에서 ‘사회문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포착될 수 없고,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적·문화적 차원에서 자신들을 표출하지 못하는 주체들은 주목받지 못한다. 설령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청소년일지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학술적 담론 속에서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주체들로서 ‘강북’ 청소년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강북’ 청소년이란, ‘서울의 강남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입시교육경쟁 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주변부로 내몰린, 막막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한, 지극히 평범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들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교육환경과 계층적·문화적·지리적 배경을 가진,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풍요로운 소비문화의 주체, 혹은 교육경쟁체제에서 실질적인 ‘학벌 자본’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주체들과 대비되는 존재들이다.²⁾

1) ‘강북’이라는 개념은 기존 연구들에서 독립변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치 ‘서구’에 대하여 ‘비서구’가 갖는 존재론적·담론적 지위와 유사하다. ‘강북’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강남’이라는 특정한 지리적·사회적·문화적 지역이 부상하자 사후적으로 바로 그 ‘강남’을 기준으로 상대화된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호명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굳어졌다. 그 과정에서 ‘강북’은 행정통계 등이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와는 별개로, ‘강남’에 비해 낙후되고 가난하며 쇠락한, ‘서민’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강남’과 ‘강북’이 형성된 역사와 그 대립적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최섯별(2003), 안창모(2010), 이은애(2012) 등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 구분이 더 나아가 부와 권력과 신분을 표상하는 일종의 문화적 코드가 됨으로써 강남 대 비강남의 우열 담론과 인식, 또 그를 둘러싼 차별화 현상 등을 낳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 비판적 문화연구·지역연구의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은애, 2012).

2) ‘강북’ 청소년은 단지 ‘강북 지역에 사는 청소년’ 정도로 조사되었을 뿐, 그동안의 학술담론 속에서 엄밀하게 논의된 적이 거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적 삶에 대응할 수 있는 삶의 조건, 일상생활의 구성방식, 문화적·계급적 정체성 형성의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복합적 함의를 내포한 개념으로 ‘강북’ 청소년에 주목한다. 물론 이 때, 우리는 ‘강남’과 ‘강북’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 틀에 지

특히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서울 동북부의 동대문구 지역 청소년들이다. 이 지역에는 중산층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낮으며, 학부모들의 교육열이나 소득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 청소년들은 앞서 언급한 기존 담론 속에서 반복되었던 스테레오타입화된 문제틀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 비가시적(invisible)이고 주변화된(marginalized),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보편적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문화적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갈 만한 것으로' 만들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왔다. 이제 청년의 문턱을 넘어서 곧 성인으로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그들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연구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자는 당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18명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과 일상생활 문화, 그 중에서도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과 의미에 대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접근한 바 있다(이상규, 2012).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된 시점에서 다시금 그 동안의 삶의 궤적들을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서울 '강북'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시절과 그 이후 청년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가는 장기적인 민속지학적(ethnographical) 탐구의 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 9명의 청소년들을 2014년 시점에서 다시 만나,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첫째,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그들의 실질적인 일상생활 체험(lived experience)은 어떤 풍경과 정서로 표상되는가? 둘째,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양상으로 경험되며,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아왔는가? 셋째, 그들은 객관적 사회현실의 조건 위에서 어떻게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며, 그러한 현실적·구조적 환경과 어떻게 교섭

나치게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강북 지역에도 외고를 비롯한 상당수의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하여 소위 '명문고'들이 자리 잡고 있고,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등 부촌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강북' 내의 내적 차이들과 중층적 성격을 최대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며, '강북'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두려 한다. 비록 엄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논의 가능한 개념'으로 '강북 청소년'을 제기해본다. 어떤 점에서는 '주변부 청소년'(이상규, 2012)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주변부'라는 용어 자체가 성급한 낙인일 수 있고, 그들 사이의 내적 차이를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들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에 속하고 '중심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다소 느슨하게나마 그들의 일상적 삶의 배경이 일정부분 '강북'이라는 문화·지리적 전형성을 공통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강북'이라는 용어로 그들의 공통분모를 포착하고자 한다.

(negotiation)해 가는가?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의 이행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객관적 현실을 미래 프로젝트 속에 어떻게 투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 특히 귀속감을 통한 계급 정체성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가 일상생활의 구조적 지평에 대한 탐구라면, 두 번째 연구문제는 그 속에서 그들이 수행한 문화적 실천, 그리고 그를 통해 독자적으로 자본화하고 자신만의 문화적 역량으로 전유했던 어떤 가치와 의미들에 대한 주목이다. 연구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당시의 연구 참여자들³⁾을 만나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북’이라는 주변부에 있으면서도 나름의 일상생활 문화를 통해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자존감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적 능동성은 일상을 의미 있고 살아갈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는 있었지만, 구조적 한계를 타파할 만큼의 권력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객관적 사회현실의 조건 위에서 새로운 생애주기로 접어드는 시점,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 진학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되자 계급적 한계가 다시금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소 낭만적이었던 그들의 미래 프로젝트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굴절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그들이 청년기로 이행해가며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과 교섭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탐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점에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미래의 삶을 전망해보는 회고적·성찰적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살아온 일상생활 문화와 풍경, 정서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성장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방식이 계급적 조건들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는 양상에 주목하며, 그들 간의 내적 차이가 어떻게 보다 더 ‘주변화된’ 청소년 주체들을 형성해내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들이 결국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과 마주하게 되고, 노동하는 청년으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추적하여, 되도록 담담하게 그들이 살아온 3년간의 삶을 그려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 청소년은 단지 지리적 위치와 계층, 교육수준, 삶의 양식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강남’의 청소년들과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계급, 경제적·문화적 자본, 교육환경, 문화적 취향의 형성과 일상생활을 보내는 방식 등에 따라 중층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존재로 파악될 수 있었다.

3) 본 논문에서 ‘연구 참여자’라는 표현은 질적 연구 전반, 혹은 민속지학(ethnography)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인 인포먼트(informant)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만 이 용어의 정확한 한국어 번역인 ‘정보제공자’라는 말이 맥락에 따라 오해될 소지가 있기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포괄하는 대상으로서 ‘연구 참여자’ 혹은 상황에 따라 ‘연구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민속지학 연구과정 속에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연구자가 제기하는 일련의 질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직접 준비한 사진으로 응답하는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질적 연구 디자인 속에 적극적으로 영상을 도입하려는 영상방법론(Visual Methods)에 속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생생한 풍경과 느낌을 포착할 수 있게 하고, 그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성찰적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스스로 보여주도록 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연구 참여자'의 지위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것은 연구자와 피연구자 사이의 관계를 좀 더 평등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인 연구방법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Banks, 2001), 연구자에게도 자신의 입장과 지위,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그들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중심으로만 수행되는 기존의 인터뷰로는 드러내기 힘든, 경험의 정서적, 정동적(affective) 측면을 드러내 주고, 사진을 가지고 회고하는 방식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보다 표현적인 심층 인터뷰를 가능케 했다. 본 연구가 시도한 장기적 민속지학과 영상방법론의 결합은, 기존의 미디어·문화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단발성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성찰적으로 되짚어보고, 언어 중심적 질적 연구 디자인의 외연을 넓히려는 새로운 모색이라는 방법론적 의미도 지닌다.

2. 2010년대 한국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당대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청소년 문화와 그들의 삶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⁴⁾ 조한혜정(2002)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학생으로서 학교 안에서 살아가

4) 대표적인 것이 각종 세대론적 전제에서 비롯된 청소년 연구 흐름이다. 그러나 일군의 학자들(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이동연, 2004, 2009)은 청소년 문화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을 단일한 특성을 가진 연령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주의'의 덫에 빠지거나, '신세대', 'X세대', 'N세대'와 같이 청소년(청년) 세대를 명명하는 특정 세대론적 기표들로 그들을 특정한 집단으로 미리 규정해 버리는 경향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이러한 본질주의적 시각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개인을 평면적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역

야 하지만, 그와는 너무 다른 학교 외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야하기에 힘겹다. 엄기호(1999) 또한 이런 맥락에서 대중문화산업이 구축한 일상성과 학교·가정 등의 기성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내고 요구하는 일상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삶의 장소와 정체성의 공간의 분리”(엄기호, 1999, 36쪽)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말하자면 ‘분열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자, ‘모순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조한혜정, 2002). 2010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⁵⁾

고등학교를 졸업해 입시경쟁에서 탈출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더욱 힘겨운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삶을 설명하는 여러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은 ‘~세대(88만 원 세대, 삼포세대 등)’ 혹은 ‘루저’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특히 최근에는 ‘잉여’라는 수식어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청년 주체들은 대개 ‘신자유주의의 강압적 경쟁체제에서 탈락한 자들’, ‘잉여의 에토스를 내면화한 자들’, ‘유예된 속물로서의 잉여’ 등으로 설명된다(백육인, 2013). 그런데 청년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비단 한국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글로벌화의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그 부정적 효과가 불확실성(uncertainty)에 가장 크게 노출된 각국의 청년층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국제비교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Blossfeld et al., 2005; 김혜경·이순미, 2012 등).

사적인 삶의 맥락들을 추상화하고 대상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 내부에서 구별되는 차이들을 은폐한다. 이렇듯 차이를 무화하는 ‘동일성의 담론’(이동연, 2009)이 세대담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5) ‘201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생은 약 189만 명이며, 대학 진학률은 70.7%로 집계됐다(일반계 고등학생 77.5%).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5~24세 청소년의 69.5%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11.2%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성적·진학문제(28%), 경제적 어려움(20.5%), 외로움·고독(14.1%), 가정불화(13.6%) 등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 비율은 2001년에 7.7%였던 것이 2011년에 이르러서는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청소년들의 삶이 교육경쟁시스템에 매여 있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지 못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실 진단은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국제비교 조사결과’(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5년 연속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 청소년 하위문화연구의 유산과 한계

영국 버밍엄의 현대문화연구센터(CCC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위문화연구는 사회적으로 소수화된, 혹은 주변화된 청소년들의 문화와 삶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실천들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Clarke et al., 1976; Hebdige, 1979 등). 이어진 후속연구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하위문화 주체들이 어떠한 실천들을 통해서 당대 사회현실과 기성세대에 대하여, 혹은 지배이데올로기나 관습에 저항하거나 그들만의 입장을 표현해 왔는지에 대해 풍부한 해석과 통찰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하위문화연구 전통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그 연구들에 '의례를 통한 저항'이라는 예단된 정치적 구호가 깔려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양상으로 구별되는 하위문화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한 개인 주체가 다양한 하위문화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 하위문화/주류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문제, 남성 노동계급 문화에만 주목한 점, 문화적 스타일을 저항과 반대로만 해석하는 단순화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Baldwin et al., 2004/2008; 김영찬·이기형, 2003).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기존 하위문화연구의 한계들을 넘어서려는 시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개 '포스트 하위문화연구(post-subcultural studies)'로 불린다. 바인치얼과 머글톤(Weinzierl & Muggleton, 2003)에 따르면, 이는 후기 근대 사회의 맥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고 대중문화산업이 전면화 되며, 일상생활 문화가 상업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화한 상황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앤디 베넷(Bennett, 1999)의 경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하위문화가 상정했던 계급기반의 문화적 상동성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의 유동적, 일시적, 분산적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파악된 청소년 하위문화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만다(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이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생활세계가 처해 있는 구조적 억압이나 문화적 빈곤, 혹은 그들의 '주변성(marginality)'을 간과하며, 탈정치화된 라이프스타일이나 파편적인 즐거움 차원에만 주목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 즉 '계급'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보수적 해석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다. 기존 연구들에서 거듭 반복되었던 인식의 한계는 정치성/탈정치성, 능동성/수동성, 저항/순응과 같은 이분법적 시각으로 청소년 문화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이다(김예란, 2007). "청소년의 일상이란 순종, 타협, 반대의 이질적인 태도들이 교차하며 협

상하고 갈등하는 과정”(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95쪽)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지닌 다면적 속성이나 구성역학, 각축, 생성, 굴곡, 역설 등을 다루기보다는 규범화, 정형화, 도식화하는 차원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큰 구도에서 보면, 이러한 이분법은 구조 결정론적 시각과 극단적 행위자 중심(혹은 문화주의)적 시각을 양 갈래로 해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행위자를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경직된 도식적 구도에서 벗어나 특정 이벤트가 아닌 총체적 ‘현장’으로 들어가는 고전적 방식의 장점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주변부’ 주체에 대한 심층적인 민속지학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기존의 학술담론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강북’이라는 일종의 ‘주변부’ 청소년 주체와 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영역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⁶⁾ 말하자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의 양상, 혹은 계급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논의들에서 계급적 요인이 심층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나, 청소년 집단 내의 분화양상, 사회 구조 내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에 따라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정수남 외, 2012; 김혜경·이순미, 2012).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라지면 청소년들은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묶여 평면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⁷⁾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 노동계급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일상적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폴 윌리스(Willis, 1981/2004)의 고전적 연구에 다시금 주목한다.⁸⁾ 『학교와 계급 재생산(Learning to Labour)』에서 윌리스는 1970년대 영국의 노동계급 청소년들에 대한 민속지학을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과 졸업 후 노동현장에 도달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계급 청소년들은 비공식적 포래집단 속에서 반(反)학교문화를 형성하

6) 앞서도 언급했듯이, 돌출적인 저항적 하위문화 집단이나 거시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청소년 상을 바탕으로 했던 연구들이 자연스럽게 간과했던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학술연구 및 담론의 ‘주변부’이기도 했다.

7) 이를테면 김은정(2009)의 경우,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포래집단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며, 사회의 중심적 가치관과 제도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결국 ‘성공적인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경우에 청소년 집단 내부의 문화적·계급적 차이나 삶의 맥락 차이 등은 거의 드러내기 어렵게 된다.

8) 주지하듯이, 윌리스의 이 연구는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이 학교를 무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참여관찰한 하위문화 연구의 대표적인 ‘교본’으로 평가받는다(이기형, 2011).

고, 학교의 권위에 도전하며 기성 규범과 질서를 깨뜨려 나간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서 우정과 의리, 연대와 같은 가치를 찾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현실세계의 부조리를 '간파'한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형성된 독자적 문화가 정치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안적 힘의 형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채, 다시 기존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 계급 재생산으로 귀결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계급 재생산'이라는 결론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급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의 의식적인 저항과 능동적 실천을 통해 문화적 차원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속에는 나름의 즐거움과 보람, 모순적 사회현실에 대한 간파, 도전과 실패 등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노동계급 청소년들은 그저 '루저'가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행위자'이며, 계급적 틀에서 이들을 파악할 때라도 우월함-열등함의 구도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Dolby & Dimitriadis, 2004). 그런 점에서 윌리스의 이러한 유산을 당대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구조결정론이나 행위자 중심의 낙관주의라는 양극단을 극복하고 '주변부' 주체의 구체적 삶을 탐구해 들어갈 수 있는 심층적 민속지학이 필요하다. 윌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속지학(ethnography)의 역할은 억눌린 자들이 (...) '구조'의 생산을 돕는 그 기초를 보이는 것뿐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문화적 관점과 자신들의 '숨겨진' 지식과 저항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적 형태로 환원되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지식형태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정치적 변화를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지니는 중요성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Willis, 1981/2004, pp. 391~393).

배제되고 소외된 주변부적 주체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정수남 외(2012)의 빈곤층 청년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조은(2012)의 '사당동' 연구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사, 주거조건과 '빈곤의 문화'에 대한 세밀하고 성실한,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체험의 산물로서 한국 사회학계의 기념비적인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민속지학이 그저 방법론적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관점과 태도를 함축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큰 틀에서 '영상 방법론'에 속하는 '영상 사회학'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본 연구는 조은의 사당동 연구가 보여준 시도, 즉 문화연구를 포함하는 사회과학의 질적 연구 방법을 좀 더 질적이고 '두터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수행되었다.

3. '강북' 청소년들을 만나온 여정과 문제의식의 형성과정

1) '강북' 청소년을 만나게 된 과정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국면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 첫 번째 국면은, 연구자가 만난 '강북'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몇 개월에 걸쳐 수행된 참여관찰과 면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국면은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을 하게 된 이후의 상황이다. 먼저, 2011년,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음악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서울 동대문구의 C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했다.⁹⁾ C 고등학교를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히 '강북' 지역 청소년이 다니는 전형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이다.¹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학교가 연구자가 졸업한 모교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약 10여 년 전까지 바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말하자면 같은 지역에서 성장한 모교 후배들인 셈인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자가 청소년이던 시절에 비해 그들의 일상과 문화생활, 학업,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비교적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꿈꾸는지 등이 궁금했던 것이다. 10년이 넘는 시차는 연구자로서 그 현장을 마주하는 데 필요한 일정 정도의 거리감을 만들어주었고, 다른 한 편으로 그들과 유사한 계급적 배경에서 그들과 같은 공간을 살아왔다는 경험은 다른 연구자가 획득할 수 없는 라포(rapport) 형성의 용이함과 그들 삶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의 지평을 마련해 주었다.

연구자가 만난 C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개 동대문구의 이문동, 회기동, 청량리동, 제기동, 전농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10년 청량리 민자 역사가 완공되면서 상

9) 당시의 연구결과는 '이상규(2012). 도시주변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음악듣기"의 의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로 정리되었다.

10) C 고등학교는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로서, 사립고등학교나 외고·과고와 같은 특목고, 기타 농학·상업·미디어·정보·산업 등을 포괄하는 (과거 '실업계'로 불렸던) 전문계 고등학교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한국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극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 본인의 고교시절에도 그러했지만, 근래에도 C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서울 내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C 고등학교는 동대문구 내의 공립·사립 고등학교를 통틀어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61.6%로 집계되어 같은 구에 속한 고등학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전문대학 진학비율이 30.9%에 이르러 다수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고등학교의 전문대 진학률은 평균 24.8%이다(서울특별시 19.8%, 전국 23.4%).

권이 확장되고 주변 지역도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뉴타운 개발' 정책의 그늘 아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로 지정된 곳도 많고, 봉천동, 길음동 등과 같은 전통적인 빈민 거주지역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측면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대학가가 자리 잡고 있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¹¹⁾ C 고등학교 주변으로는 간간히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대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이 몰려 있으며, 도로변을 따라서 단층 혹은 2~3층 규모의 상점, 음식점, 자동차 서비스 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큰 도로 안쪽으로는 예전부터 형성된 골목길 주위로 오래된 건물들이 웅크리고 있다. 이러한 주변 풍경은 연구자가 15~20년 전에 그 곳에서 살았던 시절과 지금도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속한 동대문구는 어떤 점에서 '강북'의 전형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는가? 최근의 몇몇 문헌들 속에서(김진원·한민경, 2007; 이부영 외, 2013) '강북'의 성격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묶어서 논의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문화적 여건이 소위 '강남'이나 서울의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그런 점에서 서두에서 논의한 '강북'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동대문구 또한 이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상당히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연구결과들이 '강남' 지역과 차별화된 '강북'으로서의 동대문구, 그리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¹²⁾

11) 말하자면 서울의 기능적 공간분할의 과정에서 압구정동과 같은 고급 소비 공간이나 상계동과 같은 중산층 거주 지역과는 확연히 차별화되고, 화양리와 돈암동과 같은 심대들의 전통적인 하위문화 지역 등과는 차이점도 있지만, 적어도 '강남'과 대별되는 '강북'의 한 전형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띠고 있다(이동연, 2005).

12) 서울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4년 6월 현재 8,805명으로, 총 거주 인구의 2.34%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3.61%), 강북구(3.25%), 강서구(3.05%), 중구(2.51%), 은평구(2.48%)에 이어 6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13년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사설학원 수는 총 315개로 중구, 종로구, 금천구 등에 이어 7번째로 적다. 강남구는 약 2,000개, 서초와 송파구는 각각 1,000개 이상의 사설학원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시설은 총 5곳이 있으나 공연시설은 서울시 전체에서 동작구와 더불어 하나도 없으며, 공공체육시설 또한 총 52곳으로 서울시 전체에서 7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상의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강남'과 확실히 차별화된 강북지역의 삶의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안전성·사회적 응집·사회적 포용·사회적 권한부여(empowerment) 등으로 측정된 '사회적 질'에 있어서 강남·송파·서초구와 같은 강남 지역과 서울 동북부의 강북 지역 간에 큰 격차가 나타난다는 김진원·한민경(2007)의 연구결과나, 서울의 각 자치구 별 서울대 합격률에서 강남이 강북 지역보다 10~20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입시의 성과가 대체적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진 부모의 경제력(아파트 매매가) 및 사교육 지출의 정도(사설학원 수)와 밀접히 관련 있다는 김세직(2014)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여기서 집계된 서울시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률 분포를 보면, 2014년 최초합격자 기준으로 동대문구 출신들의 서울대 합격률은 약 0.3~0.4% 정도로, 강북구, 구로구 등에 이어 서울시 전체에서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직, 2014, 12쪽).

2011년 봄, 연구자는 C 고등학교 1학년 남·녀 두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취향, 미디어 이용방식, 가족배경, 학업성적 등에 대한 간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뒤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학생들 중에서 성별, 부모의 직업, 경제적 수준, 사교육을 받는 정도, 성적, 취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18명에 대한 집중적인 민속지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들의 음악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방식을 비롯해서 사교육 경험, 가족관계, 학업에 대한 고민,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들,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과의 만남은 학교 운동장, 동네 카페, 노래방, PC방, 골목길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학교 출신으로서 비교적 그들 삶의 조건과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연구자와의 친밀성을 확인하게 되면 서부터, 그들은 속 깊은 이야기들까지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2) 청소년기, 그들만의 일상과 문화적 역량에 대한 발견

C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강북’의 평범한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대부분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할 만큼 학업성적이 뛰어나지는 못했다. 물론 그들 중 전교에서 상위권에 꼽히는 일부 친구들은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진학하기도 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일상은 사실상 방과 후의 남아도는 ‘잉여’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채워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학생들은 대개 PC방에 가거나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를 했고, 여학생들은 청량리역, 회기역, 경희대, 외대 앞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분식집이나 값싼 카페, 혹은 노래방에 갔다. 어떤 친구들은 매일같이 그냥 동네를 걸어 다니거나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과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휴대용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렇듯 그들의 일상은 겉에서 보기에 크게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너무 일상이 무료하고 답답하지 않은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연구자에게, 그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일상에는 부모나 교사, 기성세대의 눈에 잘 포착되지 않는 나름의 문화적 풍요로움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문화적 자원은 음악이었다. “음악듣기”라고 하는 실천은 사실상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일상생활의 의례와 퍼포먼스들을 포괄한다. 불법으로 밀렵하는 것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음원의 ‘전술적’¹³⁾ 획득에서부터 휴대폰, MP3 등 모바일 미

13) 여기서 ‘전술’이란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1984)가 말하는 ‘전술(tactics)’ 개념을 원용한 것이다. 그에

디어를 통한 다양한 듣기의 실천, 음악 파일을 공유·배포·관리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고급음악/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장르 음악을 섭렵하거나, 독자적인 취향을 형성하고 나름의 식견을 바탕으로 음악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¹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악을 통해 육체적 피로면스도 하는데, 이를테면 노래방에서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독학으로 기타를 연마하기도 하고,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 경험은 사실상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도시 주변부'의 청소년들에게 거의 유일한 심미적 경험이자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뭔가 '나도 해 볼 만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이었다.

일상생활 문화는 또한 인터넷(포털, 인터넷 뉴스, 웹툰)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친구들과의 메시지 주고받기, SNS, 게임 등 디지털·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돈이 없거나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해도 괜찮았다. 그들은 특별히 많은 돈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 자신들이 체화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와 그들만의 하위문화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나름의 문화적 역량들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로써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일상생활을 능동적으로 구축해 갔고, 나름의 성취감을 얻었으며, 하위문화적 장 내에서 독자적인 문화자본을 획득했다. 그들에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일상생활은 나름의 즐거움과 소소한 만족과 안락함으로 채워졌다.

그 때 연구자는 음악을 비롯한 그들의 능동적인 일상생활문화가 최소한의 자존감을 확보해 주고 있으며, 그것이 문화적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여전히 고민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이 그 '일상생활 문화'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획득한 문화적 가치들을 설명하기 위해 '하위문화 자본(subcultural capital)' 혹은 '네트워크화된 문화자본(networked cultural capital)'의 개념들이 동원되었는데, 그것들은 결국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따르면 전술은 근대적 규율 권력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 사용되는 '전략(strategy)'에 대입되는 개념으로서, 국지적·미시적인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지배의 규칙들을 어기고, 권력의 테크놀로지에 균열을 가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설명하는 데 쓰인다. 그는 대화나 독서, 산책, 쇼핑, 요리 등 일상의 많은 실천들이 전술적이라고 말하면서, 대중들이 강요된 질서에 저항하면서 '약자'로서 자신만의 공간과 자유를 구축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전술들을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14) 청소년들의 음악 취향 구별 짓기는 클래식이나 팝음악 그리고 (통속적 의미에서의) 대중가요와 같은 위계적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다. 말하자면 음악장르-계급 간의 상동성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얘기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자신의 취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드러내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 혹은 하위문화집단에서 그것이 어떤 상징적 가치를 띠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구별 짓기의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다.

식이었다.¹⁵⁾ 결정적으로, 같은 ‘강북’의 청소년이었던 그들 사이에는 무시 못 할 계급적 구분이 존재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방식, 미래를 설계하는 태도, 문화 향유의 방식과 정도, 사교육의 양상 등을 통해 그 차이를 대조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이들의 미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현실적 조건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급 재생산의 양상으로 귀결될 것인가? 혹은 그들에게서 발견했던 어떤 ‘문화적 가능성’들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 뭔가 다른 궤적을 그리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계속 이어졌고,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2011년 3월에서 11월에 걸친 1차 연구가 끝난 후, 간간히 그들과 연락을 취했고, 좀 더 친했던 사람들과는 따로 만나 이따금씩 소식을 듣기도 했다. 크게 다르지 않은 2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3) 청년으로의 이행기, 현실과 계급에 다시 주목하기

2014년이 되어 그들은 C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연구자는 과연 그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던 일상생활 문화와 취향, 삶의 방식과 가치관, 세계관, 현실인식 등이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과연 자신의 사회문화적 계층, 혹은 계급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다. 그들은 고3 시기를 지나며 많은 현실적 변화를 맞이했다. 몇몇 친구들은 ‘기술’을 배웠고, 어떤 친구는 가까스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으며, 또 누군가는 기대하지 않았던 전문대학에 합격하여 운이 너무 좋았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3년 전에 그들을 해석했던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현재 관점에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회고할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어떤 냉혹한 현실적 한계, 다시 말해 계

15) 하위문화자본은 하위문화 집단 내부에서 자신을 차별화하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문화자본이다(Thornton, 1995). 하위문화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문화에 대한 지식과 취향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레너드(Leonard, 2008)에 따르면, 이것은 부르디외(Bourdieu, 1979/2005)의 전통적 문화자본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교섭하는 방식, 어른들의 가치나 관습적 문화규범에 간섭받지 않는 그들만의 사회적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 등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네트워크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음향, 영상, 텍스트들을 모두 포괄하는 디지털화된 형태의 객체화된 문화자본을 말한다(서우석·이호영, 2010). 과거의 전통적 문화자본은 가족과 학교교육을 통해 전수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일상적 문화활동들이 가능해진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문화향유의 방식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문화 체험이나 그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경제적 비용 없이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기여를 통한 교환경제의 장에 진입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한 문화적 사회화의 과정과는 다른 궤적을 만들어낸다(서우석·이호영, 2010). 이는 다른 말로 ‘디지털화된 문화자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자본의 습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라인 음악 수용이라 할 수 있다(Molteni & Ordanini, 2003).

급적 조건과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타협이나 교섭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2014년 봄, 그들 중 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주된 분석결과는 2011년 이후의 민속지학 연구를 바탕으로, 2014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추가로 진행된 관찰 및 사진을 활용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 근거한다. 본 논문은 이들 아홉 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고, 이들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1> 같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4분기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이 약 428만 원인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적으로 이들은 대략 중간층 혹은 중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표 1.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

이름 (가명)	부모의 직업	자신이 생각하는 집안의 경제적 수준 (월수입/만원)	고교 시절 학업 성적	고등학생 시절 일상생활의 조직화 (사교육, 방과 후 활동 등 포함)	예체능 교육 경험	대학 진학
희수 (여)	부: 중고 물품 유통업 (별거) 모: 일용직	중하 (200 내외 추정)	하	고2 때부터 미용학원(메이크업 자격증) 아르바이트 (1년 이상)	피아노	수도권 2년제 (미용)
정윤 (여)	부: (지방)중소기업 모: 회계, 경리	중하 (250~300 추정)	하	고2 때부터 제과제빵 학원 (제과 제빵 자격증) 아르바이트 (6개월 이상)	없음	수도권 2년제 (제과제빵)
수진 (여)	부: 별거(이혼) 모: 화원(꽃집)	중하 (150~200)	하	고2 때, 서울시 음악영재프로그램 1년 아르바이트 (2년 이상)	피아노	서울 2년제 (야간, 국제무역)
영희 (여)	부: 유통업 모: 주부	중 (400~500)	중	입시학원, 실용음악학원, 방과 후 수업.	실용음악(작곡), 피아노, 기타	수도권 4년제 (공학)
미향 (여)	부: 의료업 모: 간호사	중상 (600 이상)	중상	과외, 방과 후 수업, 교회 오케스 트라 활동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미술, 교회 성가대활동	수도권 4년제 (조경학)
승규 (남)	부: 택시기사 모: (재혼) 주부	중하 (150~200 추정)	중하	입시학원 (고1때까지)	없음	수도권 2년제 (의료행정)
진명 (남)	부: (전) 건축 관련 자영업 모: (전) 백화점 점원	중하 * 현재 직업이 뚜렷하지 않음 (과거 250~300)	하	직업반 (3학년 때 보석세공) 아르바이트 (1년 이상)	합기도, 태권도	수도권 2년제 (보석세공)
도균 (남)	부: 목사 모: 음악강사	중상 (400 이상 추정)	중상	입시학원, 과외	미술, 피아노, 기타, 태권도, 합기도, 복싱	서울 4년제 (스포츠과학)
형주 (남)	부: 인테리어 모: (재혼) 백화점 유통업	중상 (500 이상 추정)	중	입시학원, 야간자율학습, 헬스 클럽, 교회, 고2 여름부터 연극 영화 관련 입시학원 레슨	태권도, 연기, 판소리, 무용 등	수도권 4년제 (연극영화과)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은 2011년 당시의 조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진 사람도 있는 반면,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다. 3년 전 그들에 대한 관찰은 그들만의 문화적 역량과 그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 좀 다른 시각이 필요했다. 결국 그들의 가족배경과 그들이 받았던 사교육 정도, 경제적 수준 등이 그들의 진로를 상당 부분 결정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번째 국면의 연구에서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놓인 그들의 ‘계급 정체성 형성’이라는 문제를 핵심으로 상정하게 되었다.¹⁶⁾ 이처럼 이행기 시점에 주목한 까닭은 그것이 ‘정체성 형성’이라는 과정에 시간적 맥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탈근대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의 정체성은 근대적 주체의 그것과 달리, 고정되거나 본질적인 속성을 갖지 않은 채 유동적이며 흔들리는 것으로 파악된다(Hall, 1992; Laclau & Mouffe, 1985). 말하자면 정체성은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정치적 동원 혹은 문화적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구성물이며, 적극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신광영, 1997).

그렇다면 계급 또한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강북’ 청소년들을 특정한 계급이 부여된 주체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이 맞닥뜨리고 뚫고 나가야 할 삶의 현실이 그들을 규정짓고 억누르는 양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계급’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구도로 파악될 수는 없으며, 연구자는 그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고뇌, 교섭, 의미를 둘러싼 각축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폴 윌리스(1981/2004)에 따르면, ‘계급문화’는 다른 집단, 제도, 성향 등에 대항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며,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놓인 주체들에 의해 익숙하고 특정한 양식으로 공유된다. 그렇지만 “(계급문화는) 자기정당화의 신념 체계를 지니며 기존의 가치들을 뒤집는 비공식적 영역을 나름대로 구축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된 형태들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해서 개별적인 사회적 형태와 영역들을 지배와 저항이라는 뚜렷한 중심적 계급 동학으로 너무 성급하게 환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 그 광범위한 계급논리라는 것도 부분적인 저항이 없이 발전되고 구체화될 수는 없으며, 또한 그런 부분적인 경우들도 다른 경우나 전체 재생산과 맺은 관계에서 볼 때 광범위

16) 이들의 ‘이행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아넷(Arnett, 2000, 2004)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노동시장 진입), 결혼·출산과 같은 성인기 과업의 수행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발현 성인기’로 부를 수 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삶의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로서, 많은 고민과 방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어중간함을 느끼는 불명확한 정체감을 갖는 시기로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 등이다(Arnett, 2000, 2004; 안선영·김희진·박현준, 2011).

한 계급논리에서 독립되어 내부적으로 분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될 수도 없다.”(Willis, 1981/2004, p.143).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변혜정·민가영(2007)은 ‘다른 사회구성 원리와 상호작용 속에 놓인 사회적 생산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개인의 관계적 실천양식’으로 계급 정체성을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계급과 재생산의 문제는 주어진 실체가 아닌, 형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계급 정체성’이라는 틀로 이들 아홉 청소년들의 삶의 궤적을 이해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¹⁷⁾ 그를 통해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수많은 ‘차이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내화하고, 체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4. 민속지학과 영상방법론: 성찰적 사진 인터뷰의 도입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국면의 연구에 접어들게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성찰적 사진 인터뷰(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방법을 취하였다. 이는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사진 설명하기(photo-elicitation)와 심층 인터뷰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언어와 숫자 이외에 영상 또한 적극적으로 연구 디자인 속에 도입하려는 ‘영상방법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특히 아이들이나 청소년같이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친숙하고 영상을 통한 소통능력이 높은 연구대상, 또는 외국인, 이주민, 저학력자, 기타 소외자 등 언어를 통한 공적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이용된다(Banks, 2001; Prosser & Schwartz, 1998). 이것은 기존 질적 연구에 폭과 깊이를 더할 뿐 아니라, 좀 더 참여적인(participatory) 연구를 지향한다. 여기서 도입한 성찰적 사진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거나 찾아서 준비해 오도록 함으로써, 연구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 찍기와 사진 찍는 주제 자체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2011년 인터뷰를 수행한 이후 2014년

17) 신광영(1997)에 따르면 계급 정체성 형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좌파-우파’의 정당구조와 같은 제도와 조직의 영향이다. 둘째, 형성되고 변형되는 문화적 차원이다. 종교문화를 비롯하여, 부르디외가 말하는 문화자본과 계급 아비투스(habitus)가 이 영역에 속한다. 세 번째는, 행위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 차원이다. 이는 정체성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의식의 차원을 거쳐 (집합적) 행동의 차원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행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표 2. 사진설명하기를 위해 요청한 사진 목록¹⁸⁾

<p>일상의 공간과 풍경, 주위 사람들, 성장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모습 • 내 방 • 부모님 • 우리가족 • 나의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 우리 교실 • 우리 동네, 이웃 • 익숙하고 편안한 나만의 장소 • 가장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 • 나의 고등학교 시절
<p>일상생활 문화의 양상, 심미적·문화적 취향, 문화자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취미,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 나의 특기, 내가 잘하는 것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중한 물건들 • 우리 집에서 중요한 물건들 • 내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나 예술 •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옷, 또는 내 스타일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 가장 가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곳 • 내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 • 아름다운 것
<p>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핸드폰에서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 존경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유명인
<p>미래에 대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꿈꾸게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떻게? 미래의 내 모습

봄까지 연락이 되는 사람들 중, 경제적 환경, 문화 취향, 성별, 진로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되는 9명을 섭외하여 1차 면담을 실시했다. 이 때 연구 취지와 목적,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그들에게 사진으로 찍어올 주제의 목록을 작성하여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목록은 고등학교 시절 일상생활의 풍경, 문화경험, 가족과 친구들, 정체성 등을 재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사진은 각 목록별로 1장 이상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자신이 직접 찍거나 기존에 찍어둔 사진 중에서 선택하거나, 구할 수 있는 사진으로 대체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자신을 표현하는 다른 사진이 있으면 추가해도 좋다고 말했다.

18) 이 목록은 두 번째 필자가 참여한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Bordeaux)시 주변의 서민 거주지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적용된 성찰적 사진 인터뷰 시에 사용했던 검증된 사진 인터뷰 리스트를 기초로, 한국 상황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몇 개를 첨삭하여 만들어졌다.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영상방법론이 도입된 집단 연구의 일부였던 이 인터뷰가 개별적 논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성찰적 사진 인터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번에 걸쳐 영상방법론에 관련된 국제컨퍼런스에 발표되었다. Seok-Kyeong Hong-Mercier, "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ing as a Research Intervention in Communication Studies",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sual Methods, 15-17 September 2009, Leeds, UK; "What's visual when we answer with pictures?: visual dimension of 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ing", Invited 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Visualizing Divided Society, University of Paris 8 and Scotland University, 5th June 2009, Paris; "Self image and images of identities: an experimental approach on the cultural identity of suburban migrant youth population in Aquitaine", 2nd ECREA, Section "Diaspora, Migration and the Media", Barcelona, 25-28 November 2008.

위 목록의 소재목들은 각 사진이 각 주제영역에 해당하는 해석에 일차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서로 얽히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합된 사진들은 특정한 주제를 위한 분석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성장과정, 문화적 경험, 정체성,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한 본론의 해석과정에서 경계를 넘어서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인터뷰 전에 미리 사진을 연구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고, 연구자는 전달받은 사진을 살펴보면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해당 사람에게 맞추어 준비했다. 모든 사진이 준비가 되어야만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연구 참여자에 따라 특정 목록의 사진을 빠뜨리고 제출하지 않거나, 특정 사진을 많이 준비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당 약 30~50장의 사진 자료가 확보됐다.

그 후 2차 면담에서는, 미리 준비된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사진 자체의 내용, 등장인물, 사진이 찍힌 시점, 왜 그 사진을 선택했고 다른 사진은 선택하지 않았는지 등, 사진 이미지 자체와 그것의 생산 및 선택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으며, 그로부터 다른 이야기가 이끌어져 나오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이어갔다. 사진의 순서 또한 처음부터 엄밀하게 결정된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진들을 다시 배열하거나 묶어서 함께 다루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배치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진을 통한 인터뷰는 대부분 2014년 5~6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매 회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모두 녹음했고, 녹취를 위한 음성파일로 저장되었다. 1·2차 면담이 끝난 뒤에는 매번 후기를 노트로 남겼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일종의 노스텔지어적 감성을 느끼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마친 뒤 스스로를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¹⁹⁾ 회고적 관점을 취하고 자신의 인생궤적에 대해 때로는 덤덤하게 때로는 생생하게 감정을 실어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청소년 시절이 나름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찾아가며 재구성되었고, 그들 나름의 자연스러운 서사들이 구축되었다. 또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사진을 제시했으면서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사진을 제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연구과정에서 발생

19) 이것은 모든 참여적 연구가 지니는 개입적(interventional) 특성으로, 공동체 연구, 갈등상황의 단체·기업 등에 대한 참여적 연구, 나아가 연구대상의 창의성과 표현력에 기대는 여러 가지 질적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효과다. 영상을 이용하는 질적 방법론의 일부가 치유(therapy)로 이해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이러한 상황 자체가, 연구자 혹은 참여자들 스스로가 그들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사진을 활용한 인터뷰의 중요한 질문과 답변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²⁰⁾

요컨대, 사진을 직접 찍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 중 특정한 것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수동적 피연구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택과 행위, 그리고 표현을 통해 연구과정에 이미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찰적 사진 인터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매개체가 된 사진은, 그들에게는 언어화되기 이전에 자기 모습을 직관적·함축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고, 연구자에게는 참여 관찰이나 언어를 통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상상이나 해석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 삶의 풍경, 혹은 이미지에 대한 연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완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5.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의 풍경과 정서

1)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구성방식의 특징과 차이

연구자가 만난 ‘강북’ 청소년들은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체로 알려진 한국 고등학생들의 ‘공부에 찌든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겉으로는 매우 비슷해보였다. 그러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상생활의 시간·공간적 구성과 구체적 경험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크게 봤을 때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된 일상과, 방치된 채 흘러가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일상의 대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앞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입을 위한 사교육을 받으며 학생으로서 관리되는 일상과, 아르바이트하고 직업교육을 받는 생계를 위한 일상의 형태로 대비되고 있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구성 및 관리방식의 차이가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수준, 즉 계급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력이 높고

20) 이를테면 ‘존경하는 사람’이나 ‘나를 꿈꾸게 하는 것’, ‘10년 후의 내 모습’ 같은 문항들에 어떤 사람은 매우 구체적인 인물이나 이미지 사진을 제시한 반면, 어떤 이는 아무런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 자체가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그려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보르도에서 이루어진 사진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사진 찍기의 어려움, 회피, 또는 거부 자체가 연구 참여자의 깊숙한 내면의 욕망과 좌절, 또는 억압 등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수입이 많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부모들일수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다양한 사교육을 시키고, 여러 차원에서 간섭과 관리를 수행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일상생활 경험은 주로 학원·과외나 예체능 등 사교육을 받는 정도, 외식이나 여행 등을 얼마나 하는지 등 가족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또한 부모의 학력, 문화적 소양이나, 공연·미술 전시회 등을 얼마나 자주 관람하는지와 같은, 전통적 의미에서 문화자본의 차이도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강한 이분법으로 단순화시키지는 않으려 한다. 다만 '강북'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계급적 차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경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과, 계급 스펙트럼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다양한 분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성의 차이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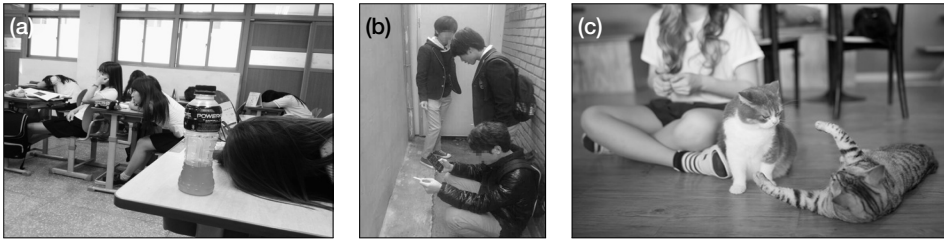
시간적 차원에서 이 차이는 '계획되고 관리되는 시간'과 '방치되고 흘러가는 시간'의 대비로 드러난다. 중산층에 속하는 영희나 미향의 경우 하루 평균 3~4시간씩 과외 교육을 받았고, 미술, 발레, 음악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받아 왔다. 도균이나 형주의 경우에도 음악, 체육, 연극 등 예체능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연기 학원에 다니거나 악기를 구입하여 레슨을 받고, 헬스클럽에 다니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들이 보낸 일상의 시간은 비교적 짜임새 있는 스케줄에 맞춰 진행되고 관리되는 일상이었다. 반면, 계급적으로 보다 주변화된 상황에 놓인 희수, 승규, 정윤, 수진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방치된 상태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승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학원에 다니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오늘 저녁에, 이번 주말에 계획한 일이 없게 된다.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어떤 '프로그램'을 갖지 못했던 그들은 스스로 하루하루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에 대해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했다. 희수는 메이크업 자격증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2학년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냈다. 2011년 당시 인터뷰에서 그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그 대부분의 시간동안 TV를 켜 놓고, 컴퓨터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방학 때는 새벽 3~4시까지 계속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했다. 이렇게 이들의 일상은 '때우듯이' 지나갔다. 수진은 '오늘의 유머'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정윤은 '덕후질'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잉여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방치되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각자의 노력으로 고군분투하며 채워야 하는 시간'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공간적 경험도 다양한 특성을 보였는데, 그것은 크게 봤을 때 ‘성취의 공간, 경쟁의 공간, 채워진 공간’과 ‘부재의 공간, 흘러가는 공간, 혹은 새로 개척해야 하는 공간’의 대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내 방, 학교, 익숙한 나만의 장소 등에 대한 사진 목록에 대하여 도균과 형주는 자신들이 성취를 이뤄낸 서사와 연결된 사진을 제시했다. 스포츠과학부에 입학하게 된 도균은 자신이 열심히 훈련했던 체육관과 운동장, 그리고 밴드의 기타리스트로서 뿌듯한 추억을 만들어준 공연장, 여러 종류의 기타로 가득한 자신의 방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받고 연극영화과에 합격한 형주의 경우도 대학로의 풍경과 연기학원 연습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 영희나 미향에게 학교는 추억의 공간이자 공부하는 공간이었고, ‘내 방’은 예쁘게 꾸며 뭔가를 채워 넣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희수, 정윤, 진명에게는 같은 ‘내 방’이라는 공간도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었다. 희수에게는 특별히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을 때 컴퓨터 한 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자신의 방이 없어 탁 트인 공간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하는 진명에게 ‘내 방’은 부재한 것, 갖고 싶은 것이었다. 따라서 사진으로 제시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차라리 밖으로 떠도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면 대개 친구들과 어울려 골목길, 피씨(PC)방, 당구장, 노래방 등을 전전했고, 술을 마시거나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다(〈그림 1-b〉 참조). 같은 집이라도 화목하고 아늑한 대화가 오가는 가족공간인지, 외롭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저 생존의 공간일 뿐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성취의 공간이자 경쟁에서 승리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면서도 대개는 괴롭고 지루한 수업시간을 때워야 했던 공간이었다(〈그림 1-a〉 참조).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물질 기반이 약한 중하층의 상대적으로 주변화된 청소년들의 공간 경험은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을 방문하고 개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를테면 정윤은 혼자서 고양이 카페를 즐겨 찾았다(〈그림 1-c〉 참조).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가기 주저할 정도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고, 식구가 많은데 좁아서 북적대는 집에서 혼자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나만의 장소’는 고양이 카페였다. 그곳은 모든 경쟁이나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도피해 시간을 흘러보내는 공간이기도 했고, 유사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희수는 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던 자신의 방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삶의 분위기를

그림 1. 일상의 풍경들



(a) 희수의 교실 풍경, (b) 진명의 고등학교 시절, (c) 정윤의 '나만의 장소'에 대한 사진

다소 반전시키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진명 또한 고3 시절 직업기술교육을 받게 되면서 학교 교실을 벗어나 다른 공간 경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진수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을 쌓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카페, 골목길, 직업교육의 현장, 자격증 학원, 아르바이트 현장 등은 사실 공부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삶의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강북' 청소년들의 일상의 풍경이 갖는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일상의 정서와 느낌, 분위기

앞서 발견된 차이는 일상에 대한 느낌과 정서적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는 사진을 찾고 그것을 연구자와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들 각자의 사연과 더불어 독특한 정서적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이를테면 도균과 형주가 제시한 사진들이 표상하는 그들 청소년기의 일상은 성취감과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했다. 도균이 보여준 사진은 밴드가 지역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던 모습, 서울의 이름난 대학 스포츠과학부에 합격한 이후 기뻐하면서 운동장을 질주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었다. 연극과를 지망하여 대학로의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형주 또한 몇 차례의 연극공연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밖에도 학급회장 경력 및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영희와 미향 또한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큰 고생 없이 원하던 수준의 성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안도감, 성취감, 뿌듯함 같은 것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들의 전반적인 느낌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방치된 일상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일상은 성취

감과 자부심, 만족감으로 채워지기 어려웠다.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어떤 순간들을 떠올릴 때 그것은 반복되는 무료함, 허무함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정윤: 일상이요? (...)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억도 안 나요.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순식간에 지나갔고. 늘, 똑같았어요. 일상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저는 거의 뭐 특별히. 뭐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한 게 없어요. 지루할 정도로 똑같았고, 남들 처럼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 했어요. (...) 진짜 무료하게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한 게 없으니까 기억도 없어요.

진명: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허송세월 시간 보내고, (...) 그렇게 놀다가 학교 끝나고 가끔 그냥 피씨방 가서 놀거나, 당구 한 게임 치거나, 아니면 밖에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집에 오면 뭐 그냥 혼자 밥 먹고... 항상 그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밥 먹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면 잠들고. 그런 식이었죠.

이것은 그들이 입시경쟁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들의 사진과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알아서 일상생활을 보내야 했던 막막함,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들도 연애경험, 동아리 활동, 학교 축제나 수학여행, 교내팝송경연대회 같은 이벤트를 비롯해 친구들과의 추억과 즐거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던 기억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장 눈앞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과업들과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심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보냈던 이들 '강북' 청소년들은 순간순간 어렴풋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들은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받지 않았던 반면, 일찌감치 '포기할' 상태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 막막함, 암담함, 무료함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입시경쟁에서의 성취를 통한 것이 아닌,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의 다른 미시적 차원의 의례들이나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서 정서적 안녕과 자존감을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해 왔다.

6. ‘살아갈 만한’ 삶을 구성하기: 일상생활 문화, 긍정적 자기 서사에서 의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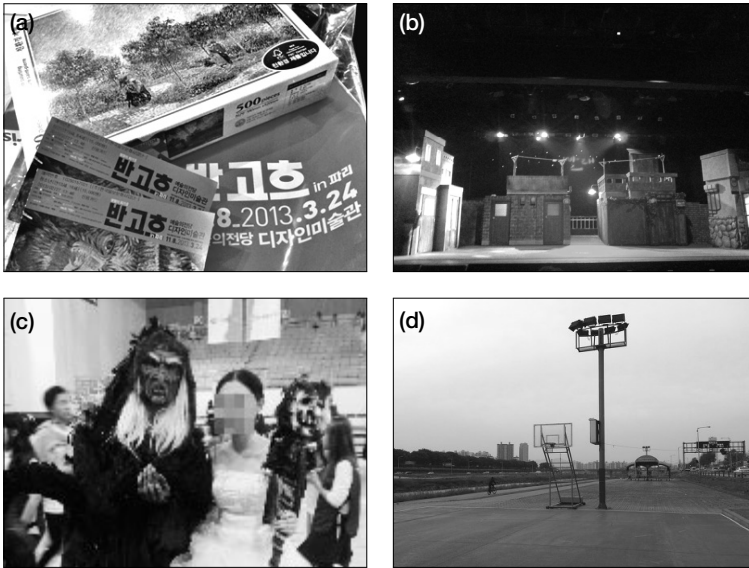
1) 일상생활 문화의 양상들

텅 빈, 흘러가는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자신만의 일상생활 문화와 청소년기 삶의 경험들 속에서 그들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왔는가?

TV를 보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하며, 친구들과 동네 길거리에서 어울려 다니고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출입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상생활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취미나 특기 활동들이 덧붙여져 축구, 농구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학생들의 경우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주도하는 가족문화생활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은 강북 지역에 살면서도 종로나 신촌, 홍대, 건대입구, 상계역 주변 등 도심의 변화가를 누비며 소비문화를 더 밀도 있게 경험할 수도 있다. 전시나 공연 관람, 쇼핑 몰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브랜드 옷, 비싼 전자제품이나 악기, DVD, CD 등을 구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미향의 경우 고흐의 미술전을(<그림 2-a> 참조), 형주는 뮤지컬을 관람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그림 2-b> 참조). 영화나 도균 또한 콘서트 관람 경험을 비롯해 새로 산 모자, 옷, 스케이트보드, 기타 등의 사진을 자신의 취미나 아끼는 물건들과 관련지어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강북’ 청소년들은 스키나 승마, 클래식 악기연주 등과 같은, 돈이 많이 들거나 소위 ‘고급문화’ 취향의 경험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뮤지컬, 전시회 관람을 하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용돈이 부족해서 극장에는 날을 잡아 갔다. 좋아하는 가수의 CD를 구매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강북’ 청소년들은 디지털·인터넷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악을 청취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사한 취향을 가진 동료들을 만나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웹툰, 코스프레(<그림 2-c> 참조) 등의 독특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만의 하위문화적 취향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독자적으로 자본화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문화향유의 방식이었다. 그러한 일상생활 문화는 부모의 재력이나 교양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취향 차원에서의 유대감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혹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피아노 연주, 그림그리기, 노래 등과 같은 ‘보편적인 특기’에 좀 더 몰두

그림 2. 일상생활 문화의 양상들



(a) 미향의 미술관람, (b) 형주의 뮤지컬 관람, (c) 코스프레를 한 희수, (d) 진명이 다니는 중랑천의 농구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자가 만난 ‘강북’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변화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반복적으로, 흘려보내듯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것은 부단한 몸의 수고로움을 요구한다. 진명이나 승규가 일상적으로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무엇보다 떠돌아다니며 걷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명은 농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경희대, 시립대, 중랑천 등지를 온종일 걸어 다니곤 했다. 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다. 골대가 비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농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그만이었다(〈그림 2-d〉 참조). ‘농구를 한다’는 사실도 중요했지만, 실은 그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승규의 경우에도 여자 친구와 만나면 대부분 동네 주변을 걸어 다닌다고 말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런 사정을 알아주고, 돈을 좀 덜 써도 용인해 주는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다. “다리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좀 더 편하다”고 말했다. 여유가 될 때만 가끔씩 영화를 보러 가거나 멀리 다른 동네로 놀러가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그려보았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소비문화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 소비의

주역으로 주목받으며 그 문화적 풍요로움에 대해 논의되었던 한국의 청소년상(像)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그들의 일상은 부유하듯 떠도는, 흘러 보내듯 이어지고 반복되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경제적 비용을 몸으로 대신 치르는 것이었으며, 디지털·온라인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배제된 공간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5장에 살펴본 시공간 경험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구분투하며 채워야 하고, 새로 개척해야 하는 그들만의 일상적 삶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몸으로 수행되는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취약한 물질 기반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나름의 재미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도래 친구들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돈을 써서 소비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저항적·전술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2) 긍정적 자기 서사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들

(1) 문화적 역량의 추구, 하위문화적 자본의 획득

그렇다면 비가시적 영역에서 거의 공짜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일상생활은 무의미하고 초라한가? 그렇지 않다. 사진을 활용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암울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놓은 많은 경험과 추억들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실천의 경우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 주었다. 많이 듣고, 남들이 안 듣는 음악을 찾아듣고, 조사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으며, 피아노와 같은 악기는 특히 여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것이었다. 기타를 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래에 자신 있었던 승규는 밴드에서 보컬로 활약했고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도 도전했으며, 노래 잘 한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던 진명은 한때 뮤지컬 배우를 꿈꾸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적어도 일상생활의 문화 속에서 '나도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뭔가 일가견 있는 것이 있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정윤의 경우 인터넷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외국 드라마 등을 많이 접했고, 음원 파일을 공짜로 구하는 다양한 '전술적'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마블린 맨슨 등의 거친 메탈 음악을 많이 들었던 그녀는 온라인 게시판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판타지 소설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나 코스프레를 기획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소위 '오타쿠'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돌 음악 중심의 대중음악은 오히려 혐오하며, 스스로를 마이너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정윤의 인터넷 활동은 자신과 같은 소수의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렇게 형성

된 취향과 문화적 소비(코스프레를 위한 가발, 옷 구입 등) 방식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문화 전체가 그러한 축을 중심으로 매우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수진의 경우에도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글을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비록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나름의 식견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이 놀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이렇게 그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남기고 있었다.

이는 계급적, 현실적 한계 조건을 일정부분 넘어서서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지위와 계급적 위치,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서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그것이 일정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의 방식으로 심화되고 축적되어, 청년이 된 그들에게 여전히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2) 힘겨운 경험들에서 찾아낸 상징적 가치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성적으로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강북’의 청소년들에게서는 남들이 하지 않은 고생을 하면서 얻은 교훈, 대표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 자신에게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자본’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²¹⁾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탓에, 지금까지 다섯 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21) 부르디외에 따르면, 상징자본이란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자본의 독특한 존재양태이며, 경제, 문화, 사회자본과 같은 자본의 한 유형이라기보다는 그것의 효과로 볼 수 있다(Bourdieu, 1997/2001). 그것은 특정 장 내의 관습, 의미체계 속에서 내부 행위자들의 ‘승인’을 거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론 상징자본은 축적될 수 있고, 경제자본과 긴밀히 연결되며, 재생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Pinto, 1998/2003).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유연한 해석을 시도할 경우, 이를 뒤집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구심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홍중(2013)에 따르면, 예술 장의 하위 장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장에는 그 장의 관습적 맥락에서 인정되는 매우 특수한 자본, 일종의 ‘반(反) 자본’이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다른 장에서는 부정적 가치로만 평가되는, 종종 천재적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지칭하는 ‘기인’, ‘실패자’, ‘광인’, ‘병자’ 같은 용어들이 표상하는 어떤 자질들이 문학 장 내에서는 매우 귀중한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인의 고통, 상처, 불운, 질병, 광기는 ‘자본화’된다”(김홍중, 2013, 618쪽). 이처럼 상징자본은 어떤 특수한 장에서는 ‘자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자본이 되는 것’(Pinto, 1998/2003, p.180)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징자본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승인하는 관습이나 의례 자체가 특정 장 내에서 뒤바뀌게 될 가능성이 마련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강북’ 청소년들은 힘겨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서사들을 구축하고 있다. 나의 ‘무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능력’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 나의 ‘잉여짓’이 다른 장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 ‘생산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나의 ‘고생’이 어떤 식으로든 나의 비참함을 역전시킬 전이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를테면 이러한 사유들이 그들의 서사 속에 녹아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진: 제가 또래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데... 이게 되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돈 쓰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그런 거? 그것도 남들보다 좀 일찍 배울 수 있었고,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연구자: 그러니까 알바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 사회경험을 좀 미리 한... (수진: 일찍 했죠.) 그게 좀 당황스럽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수진: 힘들기는 해도,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고등학교 되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용돈벌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립성? 이런 게 좀 강해서...

그녀에게 아르바이트는 독립성을 키워주며, 다른 친구들은 잘 하지 못하는 인생경험이라는 귀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그림 3-a〉 참조). 특히 부모님의 이혼이나 어려운 가정사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청소년들일수록 그것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힘들었지만 그만큼 철이 들었고, 어려운 형편과 조건에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뭔가를 성취하게 된 과정은 그들의 힘겨운 삶으로부터 의미를 찾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었다.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가출·흡연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으며 방황하던 진명은,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고3 진학 때 예체능 입시반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3학년 때 결국 보석세공을 하는 '직업반'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뜻하지 않았던 많은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다. 학교에 있으면 맨날 잠만 자고 놀게 될 것 같아 선택한 일이었는데, 의외로 칭찬을 듣게 되고 좋은 성적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진명은 자신이 배운 기술로 직접 반지를 만들어 부모님과 여자 친구에게 선물했다(〈그림 3-b〉 참조). 그렇게 '뭐라도 해 보려고' 들어간 직업학교에서 그는 스스로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과, 다른 상징적 가치기준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메이크업 미용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련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희수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1학년 때까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방에서 온종일 컴퓨터만 하던 희수는, 평소 관심 있었던 미용 학원을 어렵사리 다니게 되었고, 두 번의 대회에서 크고 작은 입상 경력까지 갖게 되면서(〈그림 3-c〉 참조) 마침내는 못 들어갈 줄 알았던 대학까지 가게 되었다.

요컨대, 이들은 그렇게 '주변부적' 위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한계 등

그림 3. 그들의 가치 있는 경험과 추억들



(a) 아르바이트 중 찍은 수진의 사진, (b) 직업 교육을 받으며 진명이 직접 만든 반지, (c) 희수가 상을 받았던 메이크업 대회에서 모델이 화장한 모습, (왼쪽 아래부터) (d) 연극 공연을 마치고 형주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e) 밴드 공연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도균

을 넘어서, 제도적 학교교육이 높이 평가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던 영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즐거움을 찾았으며, 성취감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궤적과 경험에 대한 긍정적 자기 서사, 혹은 자기정당화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했다. 진명은 자신의 ‘일탈’ 경험에 양면성이 있다고 하면서,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남들 다 안 해봤던 것’을 경험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철이 들었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또래 친구들보다 더 깊이 맛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진은 “공부를 잘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못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희수 또한 공부를 잘 해서 인문계에 진학했더라도 성적에 맞춰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헤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윌리스 식으로 말하면 한국의 교육경쟁체제에 대한 어떤 ‘간파(penetration)’의 차원을 보여준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직업을 결정지은 자신들의 입장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위의 <그림 3>을 보자.

위 사진들은 '내가 잘 하는 것' 또는 '나의 고등학교 시절', '소중한 물건들'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이 제시한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수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진명은 보석세공 직업교육으로 익힌 자신의 기술로 만든 생산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희수 또한 자신이 대학진학과 생계를 위해 배웠던 미용 기술을 발휘하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주는 연극배우로서의 삶을(〈그림 3-d〉 참조), 도균은 밴드에서 공연하는 자신의 모습을(〈그림 3-e〉 참조)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형주와 도균은 미래에 자신이 밟아나가길 꿈꾸는 '예술가'로서의 커리어를 그리는 반면, 수진과 진명, 희수가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노동하는 청년'에 더 가깝다.²²⁾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 자체는 앞서 살펴본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는 그 위계를 가름하기 힘든 '평등한'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꿈이 있었다. 그러나 수진과 진명, 희수는 그 꿈을 현실적 조건과 직업에 맞추어 굴절시켰던 반면, 도균과 형주는 여전히 자신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균과 형주가 꿈꾸는 '예술가'로서의 삶 또한 매우 불안정하고 힘겨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은 대개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기대하듯, 아직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여유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고교 1학년 시절 만났던 그들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모습이, 졸업 이후에는 비교적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긍정적 자기 서사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 현실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연대를 통한 정치적 저항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능동적 문화실천이 갖는 가능성은 일종의 계도와 같은 비가시적 문화영역, 혹은 상징적 가치의 영역으로 그들 각자에게 파편화된 형태로 숨겨져 있을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계급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2) 물론 오늘날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 '예술가'라는 존재 또한 매우 유연하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낭만화된 예술가'와 '노동하는 청년'의 이분법은 다소 도식적인 구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구분은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실제적 노동현장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수행한 문화적 실천이라는 것이 그들이 속한 계급의 물적 토대와 부모님의 경제적·문화적 지원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나 공예, 메이크업과 같은 '기술'의 차원과,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이 확보된 학생 청소년의 입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꿀 수 있는 낭만적인 예술가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7. 현실과 교섭하고 미래를 꿈꾸기

1) 현실적 조건과 진로선택, 그리고 계급적 정체성의 발견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면서 그들은 냉정한 현실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타협을 해야 했다. 다소간의 좌절과 고뇌가 뒤따랐다. 영희와 미향, 도균, 형주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 다른 다섯 명의 친구들도 모두 대학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그 진로선택의 과정에는 남다른 사연들이 있다. 2014년 그들이 현재에 도달하게 된 과정과,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해 물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수진은 작곡에 소질을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작곡 영재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1년 간 교육을 받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늦은 밤, 텅 빈 피아노 학원 연습실을 빌려 열심히 연습했다. 작곡 전공으로 음대를 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곡 강사로부터, “입시를 위해서는 피아노 레슨을 따로 받아야 하니, 내가 추천해 주는 (음대) 교수님께 레슨을 받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진은 그 레슨이 한 회에 4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날로 꿈을 접어야 했다. 좌절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음대 진학의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사진으로 그녀는 피아노를 비롯한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돈이 생기면 피아노를 사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수진의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다. 그녀는 서울 소재 야간 전문대학에 무역 전공으로 진학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며, 이들의 진로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그림을 잘 그렸던 희수는 메이크업 자격증을 준비할 무렵, 좀 더 이름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해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입시 미술까지는 감당할 돈이 없어 포기하기도 했다.

현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성취한 것, 집안의 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따져 봐야 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계급적 한계와 맞닥뜨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적 꿈은 현실적 조건 위에서 조금씩 굴절되어야 했다. 진명은 직업반으로 진학하고, 희수는 미용 자격증을 땀으며, 정윤은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수능 성적이 아닌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는 전략을 택했다. 승규도 이 방식을 택했고, 영희, 미향, 도균도 마찬가지였다. 수시전형 입학은 ‘강북’ 청소년들, 특히 이들이 졸업한 C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대입 방법 중 하나다. 전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담임 교사조차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길을 타진해야 했다. ‘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고, 힘겨워했다. 그리고 타협과 절충의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은연중에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일정 부분 발견하기도 한다. 진명은 직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한 동안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앞으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직업의 현실이 어떤가를 체험하게 된다.

진명: 돈은 돈대로 못 받고, 두세 달 정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받았음) (...) 처음에는 그냥, 사회생활 경험이니까 다녀야지, 했는데. 근데 뭔가 대우도 영 좋지 않더라고요. 한 17~18년? 경력이 넘는 사람도 월급이 200을 못 넘고 있는데, (...) 거기서 부장님도 월급이 200을 못 넘어요. (웃음)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데 안 가려고요.

정윤 또한 제과제빵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과정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일하게 될 분야의 노동조건과 현실을 깨닫게 된다.

정윤: 제과제빵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안 난대요. 진짜 아주 공장제... 공장이예요. 저희는, (...) 그러니까 개인 제과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을 진짜 기계처럼 돌려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 나가요. 힘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과제빵이 다 파티쉐인데, 그게 아니죠. 막 둥글게 반죽만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짜~ 손목 터널증후군 온다 그러더라고요. (...) 어쩔 수 없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것밖에.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직접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혼자 판단하고, 헤쳐 나가야 했다. 그것은 한계상황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어떤 집단적 연대나 유대감의 차원에서 안정적 전망을 통해 다가오기보다는 파편화된 개인의 차원에서 마주해야 될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다.

2) 그들은 미래를 얼마나,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적·계급적 상황 위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을까? 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이들 '강북' 청소년들 중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으로써,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미

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다. 배우가 꿈인 형주는 김성균이나 최민식과 같이 연극계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쌓고,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모두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도균은 밴드 ‘드림 씨어터(Dream Theater)’의 기타리스트와 같은 뮤지션이 되어 월드투어를 하고 싶다는 꿈과 더불어, 구체적인 세부 전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경영학과를 복수전공 할 예정이라는 등 몇 년 앞의 현실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영화와 미향 또한 앞으로의 야심찬 기획을 그리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중하층 계급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현실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와 타협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는 방식이었다. 정윤과 수진, 승규가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이들은 물질적 안정과 앞으로의 취직에 대해 걱정했다. 당장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했다.

수진: 우선...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연구자: 학비도 그렇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그만큼은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 때 하나, 지금 좀 일찍 하나...

세 번째 유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판타지를 미래에 투영하는 경향을 띤다. 진명은 경쟁이 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보다는 영화에서 자주 보고 막연히 그 이미지를 그리곤 했던 미국으로 언젠가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희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사진으로 화려한 보석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결혼해서 사랑받는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희수: 전 결혼식 되게 화려하게 하고 싶어요. 아, 집은 그냥 나중에 가서 꾸미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결혼식은 되게 화려하게 하고 싶어요. 연예인들 결혼하는 것처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마치 미래가 ‘부재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미래를 꿈꾸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과 기대를 상상할 수 있는 실천들 속에서 구성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일 텐데, 미래를 구체적으로 희망차게 꿈꾸지 못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삶의 의미를 박탈당함으로써 ‘그들에게 남겨진 자유로운 시간을 죽은 시간으로밖에 체험할 수 없다는(Bourdieu, 1977/1995)’ 점에서 거대한 결핍상태를 드러낸다. 꿈을 꾸기보다는 무사하게 평범한 현실적 삶이나마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으며 가슴이 멍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승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현실이... 우리나라는... 미래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일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딱히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없을 거 같아요. (10년 후의 내 삶은?) 남들이랑 다를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특별한 거 없이 무난하게 그러면 바라는 거 없는 거 같아요. 딱히...

정윤: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나중에 남들처럼 똑같이 취업을 하게 되겠고. 어디든 취업을 하겠죠. 또 대학 간 것처럼 어디든. (멍하니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고양이의 사진을 가리키며) 전 딱 이 표정이에요. 제 기분이 ... 질문 받았을 때 든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래의 나? 그게 남들처럼 근사하게 그렇게 나올 것도 없고. 솔직히 생각하기에. 그렇게 꿈꾸지는 않아요. 근사하게 신데렐라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일절. 그냥 그렇게 살겠지...

과거의 청소년·청년들처럼 패기 있게 낭만적으로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졌다는 점은 어쩌면 글로벌화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당대 젊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비극적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실패의 위험을 '개인'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스펙 쌓기와 경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이 때, 강력한 경제적·문화적 배경의 뒷받침 하에 비교적 안온하게 이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보다 더 극단적으로 내몰려 청소년 시절부터 냉혹한 현실의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수남 외(2012)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들이 미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일차적 전선은 '평범한 삶'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평범한 삶' 자체가 꿈이 되어 버린 시대의 모습인 것이다.

8. 가능성과 한계들: 독자적 문화향유의 새로운 가능성과 계급이라는 현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강북'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 민속지학의 한 산물로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청년으로 접어드는 그들의 일상적 삶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일상생활의 문화가 어떠했으며, 그들이 처한 계급적 현실로 인해 삶의 궤적이 어떻게 굴절되어 갔는가를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세대론이나 하위문화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청소년 집단 내부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잘 읽어내

지 못했다는 점, 혹은 포스트 하위문화연구들에서처럼 라이프스타일의 문제나 유동적 정체성의 논리를 관찰하는데 집중하느라 우리시대 청소년들의 삶에 작용하는 구조적 영향력과 그것에 대한 저항, 혹은 교섭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이벤트라는 계기에 대한 참여관찰이 아닌, 삶의 총체적 현장에 대한 약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찰, 그리고 인터뷰의 질적 두께를 향상시키는 성찰적 사진 인터뷰 방법을 택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사회 구성원이 거쳐야 할 중요한 사회·경제·문화적 전환기의 시점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자의식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연구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경험과 정서를 연구자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 '주변부적 주제'로서 '강북' 청소년들은 청년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부모의 계급과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미시적 일상의 경험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결국 학업성취도와 대학 진학에서의 차이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중하층 계급 청소년들은 스스로 '노동하는 청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청소년기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는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음악이나 온라인 취향공동체 문화 등을 비롯해서 또래집단 및 사회제도와와의 관계에서 획득되고 승인되는 특수한 가치들, 그것을 그들은 저마다의 '자본'으로 전유하거나 긍정적 자기 서사를 구축하는 자원으로 활용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되지 못하고 충분한 자신의 공간('자기 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부유하듯 다양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부단한 몸의 움직임,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적 실천들을 통해 무의미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일상생활 문화의 독자적 향유와 일상의 무의미와의 투쟁 전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즐거움과 자존감을 밀친 삼아 그들은 험난한 청년으로서의 삶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계급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내면화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놓인 '강북'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줄 '프로그램'이 없는 일상생활을 살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급격히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폴 윌리스가 만난 영국 노동계급 청소년들의 경험과는 매우 다르다. 영국의 그들은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의 의례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들만의 '간파', 그리고 저항들을 통해서 노동자계급 의식을 발견하고 강화해나갔다. 말하자면 집단적 정체성이었고, 계급 공동체로의 귀속 과정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강북' 청소년들은 다르다. '강남'의 청소년들은 어쩌면 상류층이라는 계급의식, 혹은 명문대에 진학하여 한국사회의 엘리트로 편입된다는 어떤 귀속 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강북'의 주변부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런 공동체문화에 대한 귀속성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집단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세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 아니 본인들이 속할 수 없는 입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학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도, 구조적 차원의 저항을 생각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각자의 취향공동체를 통해, 혹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주변 친구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들에게 '노동계급의 문화'를 전수해 줄 특별한 공동체나 집단적 공간은 없었다. 따라서 그들 개인은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었다. 그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갔거나,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 무엇의 탓도 아닌 자신의 탓이 되며,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귀속이 아니라 본인의 생존이고 가족의 안위가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박하게나마 누릴 수 있었던 그들만의 일상생활 문화가 지속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를 품게 된다. 이는 글로벌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변부로 내몰린 청소년 주체들의 힘겨운 삶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비정규직의 양산과 노동조합 문화의 분열과 약화는 이처럼 청소년들을 소속감 없는 노동자 개인으로, 준비 없이 노동현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청소년의 계급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문화향유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찰 또한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문화적 향유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이상규, 2012)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었는데, 2년 후 현재, '강북'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청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엔 접근이 불가능했던 문화 콘텐츠를 비용 없이 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강북'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력이 없으면 팬덤활동조차 버거운 케이팝(K-pop) 대중가요를 비롯해 전시·공연 관람, 돈이 많이 드는 소비문화의 트렌드를 벗어나, 그것과 구분되는 취향과 문화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케이팝을 비롯한 소비적인 대중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비싼 콘서트에 가고 음반과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등 상당한 경제력을 요구하는 일이기엔 모든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실천이 아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하고 입시경쟁에서 주변화된 '강북'의 청소년들은 케이팝과 같은 주류 소비문화를 향유할 수 없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취향을 길러나가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배양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전술은 성인들 세계의

취향의 분포를 간주하더라도 의미 있는 차이생산의 전술로 기능할 수 있으며, 미학적 정당성이 부실한 케이팝에 비해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디지털 문화취향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일 문화자본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된 ‘강북’ 청소년 중 상대적으로 중산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음악과 스포츠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중 몇 명은 여러 악기와 예술 활동, 스포츠 등을 섭렵했는데, 이것은 입시경쟁이 치열한 ‘강남’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사항인지 궁금했다. 학교와 가정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추구되는 디지털 문화취향, 그리고 문화자본획득을 위한 가족경제의 투자가 동반되는 과외활동이 공존하는 ‘강북’과, 학벌취득경쟁 속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문화자본 획득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자본의 배양 또한 ‘지연’ 또는 저발전되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강남’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의문도 생겨났다. 이것은 입시경쟁 속에서 문화자본을 통한 차이의 전술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차연(differance)’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와 계층화, 그 내부에서 취향과 문화자본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확산된다. 고전을 대학입시를 위해 소비하고, 교양을 위해 인문학 도서 요약본이 유통되는 교육시스템과, 입시를 위해 문화자본 배양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강남’의 중산층 문화가 계급 재생산을 위해 어떤 차이의 논리를 생산하고 있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북’ 청소년들의 계급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노동계급 문화나 조합주의가 약해지고 노동자 각자가 살길을 찾아나서야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교육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점증하는 장기적 잉여 노동력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한 청년들의 존재와 가치 있는 삶의 가능성 문제에 닿아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사회가 경향적으로 생산하는 잉여 노동력과 불안한 저임금 상태의 하위전문직 또는 단순노동자들, 우리가 연구했던 미용, 제과제빵, 보석세공, 의료행정, 국제무역, 컴퓨터공학, 사회체육, 연극에 종사하게 될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살 수 있을 사회조건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의 연구가 소박하게, 그 해결책을 찾기에 앞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별로 시도되지 않았던 영상방법론을 도입, 성찰적 사진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학술담론에서 간과되었던 ‘주변화된’ 청소년 주체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표현을 최대한 담아내려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에 독특한 정서나 느낌이 공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보다 성찰적이고 회고적인 관점에서 그들 스스로가 언어로는 표출하기 어려웠던, 혹

은 관찰자로서의 연구자가 발견하기 어려웠던 의미 있는 순간들과 의미 있는 공간들을 끄집어 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집안 사정 이야기(부모님의 이혼, 재혼의 문제)나 자신의 고민 같은 것들을 더 얘기하게 되고, 이것은 연구 목적에 따른 문답을 넘어서는 더 깊은 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렇지만 민속지학(ethnography) 연구에서 영상방법론은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기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영상방법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던 탓에,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 방법을 뒷받침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 방법론만의 독자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더 증명하지 못한 한계점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소년 연구가 단지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데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강북들'을 다루는 연구 속에서, 혹은 '강남'과의 비교연구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로 계속 이어져 풍요로운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참고문헌

- 김세직 (2014).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 『경제논집』, 53권 1호, 3~20.
- 김영찬·이기형 (2003). <네 멋대로 해라> 페인들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현장 보고서. 『프로그램/텍스트』, 9호, 167~201.
- 김예란 (2007).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생산 공간과 실천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5권 1호, 2~40.
- 김예란·김효실·정민우 (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52호, 90~110.
- 김은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과정: 또래관계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집 2호, 85~129.
- 김진원·한민경 (2007). 서울 25개 자치구의 ‘사회적 질’ 차이. 『대학원생논문대회 우수논문집3』, 1~41.
- 김혜경·이순미 (2012). ‘개인화’와 ‘위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연구』, 12권 1호, 35~72.
- 김홍중 (2013). 기생(寄生) 혹은 죽음의 불가능성: 『무진기행』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문학동네』, 76호, 609~628.
- 백옥인 (2013). 속물정치와 잉여 사이에서. 백옥인 (역음). 『속물과 잉여』. (1~33쪽). 지식공작소.
- 변혜정·민가영 (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권 1호, 5~37.
- 서우석·이호영 (2010). 네트워크화된 문화소비자와 문화자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1호, 93~137.
- 신광영 (1997).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경제와사회』, 35호, 34~50.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창모 (2010).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 41호, 63~97.
- 엄기호 (1999). 분열된 주체, 파편화된 삶의 공간의 극복이라는 맥락에서 본 청소년 성문화. 『청소년이데아3-청소년 문화읽기와 말 걸기』.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국.
- 원용진·이동연·노명우 (2006). 청소년주의와 세대진화.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324~347.
- 이기형 (2011). 『미디어 문화연구와 문화정치로의 초대: 민속지학적 상상력의 가능성과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 논현.
- 이동연 (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37호, 135~153.
- 이동연 (2005). 『문화부족의 사회』. 책세상.
- 이동연 (2009). 청소년은 저항하는가?: 청소년 주체형성의 다중성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72호, 23~45.

- 이부영 외 (2013). '강북형' 하자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 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3-23』, 1~76.
- 이상규 (2012). 도시주변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음악듣기”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애 (2012). 소설 속에 나타난 '강북'의 이미지: 『녹천에는 똥이 많다』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8권, 83~111.
- 정수남·권영인·박건·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권, 35~103.
- 조은 (2012). 『사당동 더하기 25 :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한혜정 (2002).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조한혜정·양선영·서동진 (역음), 『왜 지금, 청소년?』. (82~109쪽).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셋별 (2003). 욕망의 구도로 본 서울의 지형학: 강남과 강북 그 대립적 이미지. 『한국문화연구』 4권, 49~70.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ldwin, E., Longhurst, B., McCrackern, S., Ogborn, M., & Smith, G.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조애리 외 옮김 (2008).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파주: 한울.
- Banks, M. (2001). *Visual Methods in Social Research*. SAGE.
- Bennett, A. (1999). Subcultures or neo-tribes?: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tyle and musical taste. *Sociology*, 33(3), 599~617.
- Blossfeld, H. P., Klijzing, E., Mills, M., & Kurz, K. (Eds.)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London: Routledge
- Bourdieu, P. (1977). *Algerie 60*. 최종철 옮김 (1995).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 동문선.
- Bourdieu, P. (1979).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2005/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 새물결.
- Bourdieu, P. (1997). *Meditations pascaliennes*. 김웅권 옮김 (2001).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translated by Rendall, 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larke, J. et al., (1976). Subculture, Cultures and Class, In S. Hall & T. Jefferson(Eds.)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s in post-war Britain*(pp. 9~69). 김연중 옮김 (1996),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박명진 외 (편역), 『문화, 일상, 대중』, (211~245쪽), 한나래.
- Dolby, N. & Dimitriadis, G. (Eds.). (2004). *Learning to Labor in New Times*. NY : RoutledgeFalmer.
- Hall, S. (1992). Cultural identity in question. In S. Hall, D. Held, T. McGrew (Eds.), *Modernity and its futures*. Cambridge: The Open University.
-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이동연 옮김 (1998),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 Laclau, E. &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London: Verso.
- Molteni, L. & Ordanini, A. (2003). Consumption patterns, digital technology and music

- downloading. *Long range planning*, 36, 389~406.
- Pinto, L. (1998). *Pierre Bourdieu et la theorie du monde social*. 김용숙·김은희 옮김 (2003).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동문선.
- Prosser, J. & Schwartz, D. (1998). Photographs within the Sociological Research Process. In J. Prosser (Eds.), *Image-based Research: A sourcebook for qualitative researchers*. Routledge Falmer.
- Thornton, S. (1995). *Club cultures: Music, media and subcultural capital*. Cambridge: Polity.
- Weinzierl, R. & Muggleton, D. (2003). What is the 'Post-subcultural Studies' anyway?. In R. Weinzierl & D. Muggleton (Eds.), *The post-subcultures reader*. Oxford: Berg.
- Willis, P. (1981). *Learning to Labour :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Columbia University Press (Morning Side Edition). 김찬호·김영훈 옮김 (2004). 『학교와 계급 재생산』. 서울: 이매진.

투고일자: 2014. 08. 31. 수정일자: 2014. 10. 11. 게재확정일자: 2014. 10. 18.

A Visual Methods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Class Identity and Practices of Everyday Life

A Case Study on Youths of 'Gangbuk'

Sangkyu Lee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Kyeong H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ddresses questions on the marginalized position of youths of 'Gangbuk' and elucidates how they construct their own identities in the individual trajectories of everyday life. Three years of research, includ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on nine students from Northeastern district of Seoul. The research also adopted 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method in order to encourage the informant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search. The result illustrates the diversity of the everyday life experiences. More 'marginalized' youths from middle to lower class background had to endure the burdens of their daily lives without programs. Still, they were elaborating their own cultural taste and positive self-narratives at the periphery of the mainstream culture, by practicing music, online community activities and bodily performances. They had to negotiate the crucial turn of life after their graduation, when they entered into the harsh social competition with limited resources. We observed how they gradually assimilate the identity of the 'working youth', some of them developing a positive valorization of their experiences labor. Findings underline the active role of the cultural practices in the making of class identity of the youth and the necessity of researches situating the making of class identity and the reproduction of the class for the youth in the larger geography of class culture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Lastly, it is argued that these youth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determined subjects, who reproduce already established class identities, but as active agents of their lives who deserve more respects and attentions from the society.

KEYWORDS 'Gangbuk youths', everyday life, class identity, reflexive photography interview, Visual Methodology